

농촌 노인의 마을 공동시설 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이정화 · 강경하* · 정남수* · 박공주* · 윤순덕*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Improvement Strategies for Optimum Usage of Community Facilities by the Rural Elderly in Korea

Lee, Jeong Hwa · Kang, Kyeong Ha* · Jung, Nam Su* · Park, Gong Ju* · Yoon, Soon Duc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National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 Rural Korea has been becoming heavily aged societies from the end of 20th century due to the massive depopulation of young generation and extension of the average span of human beings. Although rural communities in Korea had been traditionally based on closely webbed social relations, almost all of community self-help organizations disappeared in recent time with very strong urbanization trend. However, almost all rural villages in Korea have the village seniors' union -"NO-IN-HOE" in Korean speaking- of which members usually use, operate and maintain community facilities in terms of voluntary base. Using these facilities, most of public/common/private services and community activities have been being served or provide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age tendency of community facilities and needs of the rural elderly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ir optimum usage. For this purpose, data was gathered both from community (107 villages) and individual level surveys(881 older people). The statistical method used for data analysis was descriptive statistic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It was found that the dominant family type of the rural elderly was elderly-only household (75%) with very limited economic capability. There are 2~3 common community facilities with village including the seniors' center -"KYOUNG-RO-DANG" in Korean speaking. Many of the elderly (74%) use the center once or twice per week. There are several rooms in the center, like as kitchen, bathroom and health room, of which usage frequency differs respectively. Many rural elderly want assistance from out-of-village for good maintenance and free use of these facilities.

Key words : Community facilities, Rural community, The rural elderly

1. 서론

농촌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탈농과 이농으로 노인부양과 관련한 가족기능이 저하된 반면,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농촌노인들도 사회복지 수혜대상에 포함되지만 복지관련 기관이나 시설, 인력배치 등이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이정화와 송미영, 2004), 서비스 수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열악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농촌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한국여성개발원, 2002)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로부터 소외되어온 농촌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쉬운 실정이다.

최근 지역사회차원에서 재가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복지의 지향점을 ‘사람들은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Challis와 Warburton, 1996)’는 것에 두고 있어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스스로를 부양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지원형태는 노

Corresponding author : Lee, Jeong-Hwa

Tel : 062-530-1326

E-mail : jhlee2@jnu.ac.kr

인의 존엄성과 자치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설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공공부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이현주 등, 2003)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인력 활용이나, 노인복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지역축제에 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 부업거리를 마련해준다거나(내일신문, 2004), 초고령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한다거나(한국일보, 2004), 농촌지역 노인 의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그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봉사대’를 조직, 운영하는 것(세계일보, 2003)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아이디어가 농촌노인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다.

한편, 농촌은 전통적 사회관계를 가진 공동체로 일컬어진다. 한국의 농촌사회는 마을을 단위로 한 공동체 활동이 매우 특징적이고 이러한 특성은 농촌노인 복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농촌사회에서 마을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적 사회조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농촌마을의 주축세력이 된 ‘노인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협동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자녀를 대도시라는 원거리에 두고 주로 홀로, 혹은 노부부가 동거하는 형태로 살고 있는 농촌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망(social support network)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 마을공동시설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물적 자원으로서, 인적자원과 사회자원을 통합하고 각종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을 통한 노인의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는 이들의 정신건강, 심리적 복지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정화와 한경혜, 2003). 따라서 농촌노인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노인활동, 공동체 활동의 장이 되는 마을 공동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마을의 공동시설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조순재 등, 1996)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구조적 특성, 기능, 시설 규모와 접근성, 만족도 등을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에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주거환경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농촌지

역은 주거생활이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마을단위로 공동설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으로써 농촌마을에서 공동시설의 의미와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마을 공동시설을 마을회관, 경로당, 정자목 공간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 보건 의료 시설이나 체력단련실 등의 건강관련 시설, 폐교와 같은 유휴 공동시설, 공동작업장이나 창고 등의 생산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농촌마을에서 이용이 활발한 공동시설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정자목 공간 순이었으며 농촌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은 정보화 관련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공동주차장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 정주생활권 체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특성이나 만족도, 이용방안 등을 조사 분석한 연구들에서는(송미령과 박시현, 2001, 윤원근과 이상문, 1998, 박창석 등, 1999), 농촌에서 정주생활권을 구분하는 개념이 무의미해졌으며 생활권의 크기가 광역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읍·면 소재지 등 공동시설의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농촌정주권이나 생활권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주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농촌의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인구구성비가 달라졌을 때 공동시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현재 노인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시각 및 관점에서 마을 공동시설이 갖는 의미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마을별로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을시설의 구조적 특성, 활용도는 물론, 구조적 특성과 활용도와의 관계 등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0개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시설의 종류 및 수, 특히 농촌노인들의 주 활동공간인 노인회관(경로당)의 구조적 특성,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인 재촌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이 1993년부터 집중육성하고 있는 ‘노인생활지도마을’ 중 제4차(2002~2004) 대상마을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마을들은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고루 분포한 110개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므로 이 마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보편적인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의 생활지도사가 그 마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 현황을 조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각 마을에 사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마을공동시설 이용빈도와 욕구, 희망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둘째, 마을단위의 조사를 통해 해당 마을에서 이용 가능한 마을공동시설, 복지시설의 종류 및 수, 활용도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마을 중 일부를 본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노인 대상 설문조사는 먼저 경기도 3개 마을 노인을 대상으로 2003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조사요원을 통해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10개 마을마다 60세 이상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최종분석에 활용한 유효표본 수는 881부이다.

마을조사는 “노인생활지도마을”로 선정된 110마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공무원(생활지도사)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3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 마을 담당 생활지도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후 수정 보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 동안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생활지도사가 알기 어려운 마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마을이장이나 노인회 회장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였다. 110개 지역에 설문지를 배포, 107부가 접수되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 자료처리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마을별, 노인의 특성별로 다양한 응답을 얻기 위해 선다형 질문과 함께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과 같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조사대상 마을노인 및 마을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노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는 ‘남성노인’이 44.9%, ‘여성노인’이 55.1%를 차지하여 조사된 농촌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60대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70대가 40.2%, 80세 이상이 11.0%로 낮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노인혼자’가 21.8%, ‘부부끼리’가 53.0%로 74.8%가 노인단독가구로 나타나 농촌마을에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	396(44.9)	연령	60~69세이하	430(48.8)
	녀	485(55.1)		70~79세	354(40.2)
				80세 이상	97(11.0)
거주 유형	본인혼자	192(21.8)	농업 소득 (단위:만원)	500 미만	509(61.0)
	부부끼리만	467(53.0)		500~1,000미만	187(22.4)
	가족과 함께	222(25.2)		1,000~1,500미만	65(7.8)
				1,500~2,000미만	24(2.9)
		2,000이상	49(5.9)		
경제적 형편	매우 인종다	77(8.7)	한 달 생활비 (단위:만원)	10 미만	48(5.4)
	인종은 편이다	310(35.2)		10~30 미만	333(37.8)
	보통이다	409(46.4)		30~60 미만	284(32.2)
	좋은 편이다	80(9.1)		60~90 미만	102(11.6)
	매우 좋다	5(0.6)		90~120 미만	64(7.3)
				120 이상	50(5.7)

농촌노인의 경제적 형편은 농촌노인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농촌노인은 본인의 경제적 형편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종은 편이다’가 43.9%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농촌노인들은 자신의 경제상태를 보통 이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500만원 이하’가 61%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농업소득 11,274천원(통계청, 2003)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빈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달 평균생활비는 10~30만원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았고, 30~60만원이 32.2%로 나타나, 75.4%가 6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마을의 일반적 특성

1993년, 1996년, 1999년에 이어 제 4차 노인생활지도마을로 선정된 본 조사대상 마을은 전국 9개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마을당 노인 수는 평균 82명이고,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은 평균 41명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사업대상으로서 110개 마을은 전국의 농촌마을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고 지원되는 금액도 매우 적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보았을 때, 노인생활지도마을사업은 정부예산으로 노인교육, 다양한 취미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마을노인들이 함께 모일 기회가 많아 사업대상이 아닌 마을보다 더 활기에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적은 사업예산이지만 이 예산으로 벌이는 각종 사업은 마을노인을 모으고 노인의 생활에 활력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었다.

표 2. 노인생활지도마을의 전국 분포

지역	총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마을수(개)	110	11	11	7	14	9	16	14	18	4	10

표 3. 조사대상 마을의 특성

구 분		개 (%)	구 분		개(%)
지대 구분	도시근교	17(16.0)	농업기술센터 와의 거리	10 km 이하	45(44.1)
	산간지역	20(18.9)		11 ~ 20 km	28(27.5)
	중간지역	44(41.5)		21 ~ 30km	22(26.1)
	평야지역	25(23.6)		31km 이상	7(6.8)

가. 조사대상마을의 특성

조사대상 마을의 지대분포를 살펴보면, 중간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41.5%(44마을)로 가장 많았으며, 평야지역 23.6%(25마을), 산간지역 18.9%(20마을), 도시근교 16.0%(17마을)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생활지도마을은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생활지도사가 관리하는 마을로 약 70%가 센터에서 20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마을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같은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진영 등(2003)은 '사업을 추진할만한 마을 리더가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노인회의 활발한 운영'이나 '마을주민의 적극적 요청'을 주요 이유로 보고한 바 있다.

나. 조사대상 마을 '노인회' 현황

먼저, 조사대상 107개 마을 '노인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연령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을 노인회 회원가입연령으로 응답하였는데 60세 ~ 64세 범위에 44.0%, 65세 이상이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노인회 회원자격연령'에 있어서는 60세라는 기준도 아직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회의 월 회비를 조사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항목에 응답한 73개 마을 중 28개 마을(38.4%)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가 없었다. 월 1,000원, 1년에 1만원(월 880원정도)이하를 내는 마을이 대부분이었다(69.9%). 한편 월 5,000원 이상을 내는 마을은 5마을,

표 4. 노인회비

월별 노인회비	마을(개)	비율(%)
0 원	28	38.4
250원~1,000원 미만	23	31.5
1,000원 이상~5000원 미만	17	23.3
5000원 이상~10,000원 미만	5	6.8
합 계	73	100

* 무응답 : 34마을

표 5. 마을 노인회의 활동수준

	빈 도	비 율
전혀 활발하지 않다	1	1.0
별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6	5.8
보통이다	27	26.0
활발한 편이다	57	54.8
매우 활발한 편이다	13	12.5
합 계	104	100

* 무응답 : 3마을 (2.8%)

6.8%에 불과했다. 이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마을노인회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농촌노인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회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마을 공동작업과 같은 품앗이로 기금을 마련,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농촌마을에서 노인회원들이 월 5,000원 이상의 회비를 잘 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사료된다.

마을 '노인회'의 활동수준은 표 5와 같이 대체로 '활발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마을(12.5%)이 '매우 활발한 편', 57개 마을(54.8%)이 '활발한 편'으로, 활발한 편 이상이 67.3%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도 27개 마을(26%)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는 6개 마을(5.8%), '전혀 활발하지 않다'는 1개 마을(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마을노인회의 활동수준은 보통이상이 92.5%이므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이 노인생활지도마을로 선정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농촌마을 공동시설 현황

선행연구들에서는 마을 공동시설을 커뮤니티 시설, 건강관련 시설, 유희 공동시설, 생산시설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중 유희공동시설을 제외하

표 6. 노인관련 마을공동시설

변 수 명		응답마을 수 (개)	응답된 사례수 비율 (%)
커뮤니티시설	마을회관(경로당)	107	100
	마을공동컴퓨터	31	29.2
	정 자	34	32.1
생산시설	마을공동작업장	24	22.6
건강관련시설	물리치료실	3	2.8
	찜질방	7	6.6
	공동 목욕탕	5	4.7
	체력단련실	25	23.6
	게이트볼 장	11	10.4

* 무응답 : 1마을, * 유효응답 : 106마을(다중응답분석)

고 노인들이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3영역 9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어떤 시설을 얼마나 많은 마을에서 구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노인회관(경로당), 마을회관, 정자(정자목 공간), 마을공동쉼터를, 건강관련 시설로는 물리치료실, 찜질방, 공동목욕실, 체력단련실, 게이트볼 장을, 생산시설로는 마을(노인)공동작업장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을공동시설은 커뮤니티 시설과 건강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마을별로 농촌노인이 이용가능한 마을공동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였다<표 6>.

9개 시설 중 가장 많이 확보된 시설은 마을회관(경로당)이었다. 분석과정에서 마을에 따라 경로당만 있는 경우,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합하여 처리한 결과 모든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정자목 공간(32.1%), 마을공동쉼터(29.2%), 체력단련실(23.6%), 마을공동작업장(22.6%) 순이며, 물리치료실, 공동목욕실, 찜질방 등 건강관련 시설이 확보된 마을은 7%이하로 매우 적었다. 건강관련시설 중 체력단련실을 갖춘 마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3.6%) 이는 별도의 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시설 일부에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노인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운동인 게이트볼장을 갖춘 마을은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노인 이용시설 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3개를 가진 마을이 43개(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5개 마을이 2개(22.4%)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 90%이상의 마을이 2개 이상, 평균 3개정도의 노인관련 마을공동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농촌마을에 마을회관(경로당)을 제외하고 1~2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농촌노인들의 활동이 마을회관(경로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농촌마을에서 가장 일반적인 마을회관(경로당)의 구조 및 이용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7. 마을별 공동 시설수

노인관련 시설 수	마을	비율
1 개	11	11.2
2 개	25	22.4
3 개	43	40.2
4 개	14	13.1
5 개	14	13.1
합 계	107	100

3) 마을회관(경로당)은 마을에 따라서 경로당, 노인정,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으로 일컬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마을회관(경로당)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V. 농촌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실태 및 개선점

이 장에서는 마을회관(경로당)내에 어떤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그 활용실태는 어떤지 파악하였다. 경로당의 구조와 주이용자, 이용빈도와 함께 마을회관(경로당)내 시설로서 건강관련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구비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점과 마을공동시설 운영과 관련한 희망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1. 경로당의 구조 및 이용빈도

마을 경로당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이용자를 고려하여 보유한 방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실제 농촌의 경로당 방문 시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할머니들만 모여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할아버지들만 모여 있는 마을이 있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 방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남녀유별의 유교문화로 인해 남녀가 같이 한방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편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이 주로 나뉘어져 있어야 하고, 방이 하나인 경우 어느 주도적인 한 성이 방을 독점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방의 수와 이용자 그룹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조사결과 표 8과 같이 경로당의 ‘방이 2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각기 사용하는 마을이 69마을(6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이 1칸인 마을이 아직도 17개 마을(16.1%)이나 된다. 이 경우 경로당이 없는 성은 노인회 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마을에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할머니들이 방을 하나 얻어 부업거리를 하면서 같이 소일하는 경우도 사례조사에서 볼 수 있었다.

농촌노인들이 경로당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질문한 결과, 표 9와 같이 1주일에 3~4일 이상, 거의 매일 간다는 응답자가 과반수였다. 여기에 일주일에 1~2번 이상 이용하는 15%와 농번기에는 자주 못가고 농한기,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매일 간다는 응답자를 합하면 약 74%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매우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경로당의 방 개수와 주 이용자

구분	빈도	비율
방이 1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동으로 이용	5	4.7
방이 1칸이고 할아버지들이 주로 이용	6	5.7
방이 1칸이고 할머니들이 주로 이용	6	5.7
방이 2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각기 이용	69	65.1
방이 3칸 이상임	19	17.9
방이 2칸이고 할아버지만 사용	1	0.9
합 계	106	100

* 무응답 : 1마을 (0.9%)

표 9. 농촌노인들의 경로당 이용빈도

구분	빈도	비율
1주에 3~4회 이상	471	54.2
1주에 1~2회	131	15.0
한달에 1~3회	80	9.2
2~3달에 한번	13	1.5
1년에 1~2번	14	1.6
농한기 (겨울)	38	4.3
필요한 때만 (모임, 식사초대 등)	4	0.5
거의 안감	123	14.1
합계	874	100

이는 농촌마을에서 경로당이 노인들을 모으는 구심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촌노인들이 현재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질문한 결과 표 10과 같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마을노인들과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 잡담, 농사정보 주고받기, 소식 전하고 전해 듣기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식사준비 및 식사하기를 들고 있어서 경로당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이 곳에서 나누는 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미활동, 건강관련 활동, 공동작업, 휴식 등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도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해서 그동안 많이 즐겨왔던 바둑, 장기, 화투 외에도 노래방, 윗놀이, 공예품만들기(짚공예, 돛자리, 종이접기 등), 취미 관련 교육받기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활동으로는 찜질, 게이트 볼, 의료기기 사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되었는데 농촌노인 881명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기에 그 종류는 상당히 많았으나, 적극적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은 사실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농촌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농촌노인들은 취미활동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고(43%), 다음으로는 부업활동, 여행, 교양교육 순이었으며 그 외에 기타의견 중 16명은 건강과 관련되는 치료·교육활동을 원했고 경로식당(점심제공),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10. 농촌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고 싶은 활동

구분	빈도	비율
취미활동	299	43.0
부업활동	175	25.2
교양교육	45	6.5
여행	142	20.4
기타	34	4.9
합계	695	100

표 11. 경로당 내 운동시설 구비

구분	빈도	비율
없다	35	33.3
운동하는 방이 별개로 있다	19	18.1
경로당 한 칸에 운동기구 몇 개 있다	48	45.7
가까운 곳에 건강관리실이 있어 이용함	1	1.0
합계	105	100

* 무응답 : 2마을 (1.9%)

이는 농촌노인들이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활동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마을회관(경로당) 내 시설

가. 건강관련시설

경로당의 운동시설 구비여부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경로당 한칸에 운동기구가 몇 개 있다’가 48개 마을(45.7%), ‘운동하는 방이 별개로 있다’가 19개 마을(18.1%)로 나타난 반면 ‘경로당에 운동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가 35개 마을(33.3%)이다. 따라서 노인생활지도마을 중 약 67%에 해당하는 경로당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취사시설

경로당의 취사시설 구비여부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매우 잘 이용하고 있다’가 75마을(71.4%), ‘갖추어져 있는데 특별한 때만 사용한다’가 30마을(28.6%)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사된 거의 모든 경로당에는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상당수의 마을에서 이를 잘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회의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샤워시설

또한 표 13과 같이 경로당에 샤워시설이 ‘없는’ 곳은 80개 마을(76.2%)이고, ‘갖추어져 있는’ 곳은 25개 마을(23.8%)인데 시설을 갖춘 마을들의 사용수준을 살펴보면, ‘특별한 때만 사용한다’ 12마을(11.4%), ‘거의 사용하지 않

표 12. 경로당의 취사시설 구비

구분	빈도	비율
갖추어져 있지 않다.	1	0.9
갖추어져 있는데 특별한 때만 사용한다	30	28.3
매우 잘 이용하고 있다	75	70.8
합계	106	100

* 무응답 : 1마을

표 13. 경로당의 (간이)샤워시설

구분	빈도	비율
없다	80	76.2
갖추어져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9	8.6
갖추어져 있는데 특별한 때만 사용한다	12	11.4
매우 잘 이용하고 있다	4	3.8
합계	105	100

* 무응답 : 2마을 (1.9%)

는다' 9마을(8.6%), '매우 잘 이용하고 있다' 4마을(3.8%)로 나타났다. 이로써 경로당에 샤워시설이 설치되어있는 마을이 많지 않고,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샤워시설에 더운물이 안나오거나 온수를 쓸만한 난방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목욕시설이 성별분리가 명확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사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사실 농촌노인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목욕시설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이용에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표 14와 같이,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이 38마을(36.9%)인데 비하여 나머지 65마을(63.1%)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이 있지만 장소가 협소함'이 20마을(19.4%), '시설이 노후됨'이 11마을(10.7%), '난방이 어려움'이 10마을(9.7%)로 나타났다.

3. 마을공동시설 이용관련 희망사항

마을공동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희망사항에 관한 질문은 개방형으로 이루어져 다양하게 표출되었는데 크게 건강, 시설, 급식, 부업, 여가, 봉사라는 6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표 15를 보면, 시설 영역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

표 14. 경로당 이용에 가장 불편한 점

구분	빈도	비율
없다	38	36.9
거리가 멀음	5	4.9
협소함	20	19.4
시설이 노후됨	11	10.7
난방이 어려움	10	9.7
취사시설이 안되어 있음	1	1.0
남녀 구별 없이 한방 사용	4	3.9
기 타	14	13.6
합계	103	100

* 무응답 : 4마을 (3.7%)

표 15. 마을공동시설 이용관련 희망사항

구분	마을 수	비율
시설 (시설확보, 수리, 보수, 운영비, 유지비 등)	77	57.0
건강 (건강관리, 건강기구건강관련시설, 의료지원 등)	26	19.3
여가 (취미활동, 교육, 잔치, 관광, 오락 등)	16	11.9
급식 (식사제공, 간식제공 등)	7	5.2
부업 (소일거리, 기술전수 등)	5	3.7
봉사 (불우이웃돕기 등)	4	3.0
합계	135	100

* 1개 응답 : 79마을, 2개 응답 : 28마을

* 복수응답

시설 확보, 시설 보수, 시설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건강, 여가 영역 순이었는데 이는 마을공동시설을 잘 갖추고, 이곳에서 건강, 취미, 여가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 밖에 급식, 부업, 봉사 영역에 대한 욕구는 시설, 건강, 여가 영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결과는 농촌노인들은 마을공동시설 - 특히 건강관련 시설- 확보와 함께 이미 마련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물신축, 게이트볼 장, 급식시설, 난방비, 정수기, 환경정비 및 환경 조성, 노인목욕탕, 찜질방, 화장실, 작업장 보수, 도로포장 등을 희망하였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은 지역마다 그 비율은 다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공동시설에 대하여 지원주체인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시설이 노후, 부족한 곳에는 시설을, 이미 시설이 상당부분 확보된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노인들의 건강관련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건강과 관련된 어떤 시설들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표 16과 같이, 물리치료실, 찜질방, 공동목욕탕, 체력단련실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해서는 물리치료실에 대한 희망이 가장 높고, 1순위로 지정한 항목에서는 찜질방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62%). 이는 노인들이 만성신경통, 허리,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할 물리치료나 찜질방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력단련실의 경우, 몇 가지 운동기구나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상당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 남성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다른 시설보다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16. 건강관련 희망시설

구분	1 순위	2 순위	계
물리치료실	201(22.8)	368(48.4)	569(34.7)
찜질방	549(62.3)		549(33.4)
공동 목욕탕		287(37.7)	287(17.5)
체력단련실	33(3.7)	105(13.8)	138(8.4)
없다	98(11.1)		98(6.0)
합계	881(100)	761(100)	1,641(100)

* 복수응답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재촌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종류 및 수, 구조적 특성, 활용도, 이와 관련한 농촌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 110개 노인생활지도마을 노인 881명에 대한 면접조사와, 마을 담당 생활지도사 107명으로부터 마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마을 및 노인의 특성, 노인회 활동 수준, 마을공동시설 현황,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실태 및 개선점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인 농촌노인들은 약 75%가 노인 혼자 혹은 부부가 같이 사는 노인단독가구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농업소득 500만원 미만, 한달 생활비 10~6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했다. 마을 노인회는 67%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노인회비는 거의 없거나(38.4%), 월 1,000원 미만인 마을(31.5%)이 대부분으로서 각출하는 회비는 최소화하고 공동부업 등을 통한 기금마련으로 노인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3영역 9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마을에 갖추어져 있는 공동시설의 종류와 수를 파악한 결과, 관련시설 중 마을회관(경로당), 정자목 공간, 마을공동쉼터, 체력단련실, 마을공동작업장 순으로 많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마을회관(경로당)은 100%, 나머지 시설들은 20~30% 정도의 마을에서 갖추고 있었다. 마을당 노인관련 시설 수는 평균 3개 정도로 마을회관(경로당)을 제외하고 마을당 1~2개의 이용시설을 더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회관(경로당)은 거의 모든 마을에 갖추어져 있어 가장 보편적인 시설이면서 농한기에는 74% 정도의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방문하여 이용할 만큼 이용율이 높아 농촌노인들에게 그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파악되었다. 마을회관(경로당) 내 시설과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노인들이 사용하는 방 개수는 73%가 2~3개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방이 1칸 이어서 불편해 하는 마을도 16%가 되었다.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설은 취사시설로 1개 마을을 제외하고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매우 잘 이용하는 곳도 71%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마을단위 행사가 많고 마을회관(경로당)은 이런 행사를 치르고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마을회관(경로당)에 운동하는 방이 있는 경우는 18.1%, 샤워시설을 잘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4개 마을, 3.8%에 불과했다.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24%에 이르지만 이렇듯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경로당 난방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남녀 공히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노인들에게 마을공동시설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을 물었을 때 신규시설물의 확보와 함께 기존 시설물의 보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인구가 줄어든 농촌마을에 시설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활용도를 보다 높이고자 하는 바램의 표현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경로당에 운영자금이 지원된다면 노인 공동식사는 물론, 노인들의 공동체 활동이 더욱 촉진되어 농촌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노인회 대상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시와 같은 대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성은 높은 프로그램으로 농촌마을에 효과적인 재가복지 서비스, 재촌 서비스로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족으로 좋은 시설이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마을회관(경로당)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펴기에 매우 좋은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노인인구는 한 지역 내에서도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에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마을 노인들의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율이 높은 만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이동 복지관 서비스'를 통해 마을마다 찾아가며 제공한다면 노인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서비스의 이용율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이 복지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농촌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취미활동, 부업활동, 여행, 교양교육, 봉사활동 등 매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희망하였다.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촌의 가장 보편적인 공동시설인 마을회관(경로당)을 활용, 다양한 여가활동, 건강관리, 의료 프로

그램 등을 제공한다면 농촌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마을 주민의 욕구에 따라 마을공동시설 건립, 개·보수, 운영비와 같은 지원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고, 잘 갖춰어진 편의시설이 농촌노인들의 자조활동, 생산적인 활동, 취미·여가활동 그리고 공적·비공적 서비스 제공의 장(場)으로 활용된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2003~2004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시험연구사업으로 수행한 ‘농촌노인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결과의 일부임.

참고문헌

1. 내일신문, “나비·곤충산업 메카 탈바꿈”, 2004년 5월 24일 04면
2. 박창석, 임승빈, 김용태, 1999, “농촌마을 계획을 위한 마을유형 및 특성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4(4) : 61-70
3. 세계일보, “지금 내고장에서는/곡성 홍산양로원 김진순 원장”, 2003년 10월 9일 18면
4. 송미령, 박시현, 2001,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윤원근, 이상문, 1998, “농촌생활환경정비 대상 시설항목의 선정”, 농촌계획 4(2) : 8-19
6. 윤찬영, 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 : 27-41
7. 이정화, 송미영, 2004,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노인생활지도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5(3) : 149-165
8. 이정화, 한경혜, 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 209-238
9. 이진영, 박공주, 이정화, 김경미, 2003, 노인생활지도마을 운영방안 연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보고서
10. 이현주 외 8인, 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연구보고서 2003-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조순재, 임승빈, 오휘영, 1996, “농촌마을 공동시설 개선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2(2) : 37-44
12. 한국여성개발원, 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농림부
13. 한국일보, “전국 장수부부 48쌍 합동 회혼례”, 2004년 5월 10일 22면
14. Albert, M. S., K. Jones, C. R. Savage, L. Berkman, T. Seeman, D. Blazer, and J. W. Rowe, 1995, Predictors of cognitive change in older persons: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10 : 578 - 589
15. Challis, D. and R. Warburton, 1996, “Performance indicators for community-based social care”, PSSRU Bulletin, 10 : 12-14